

고종 곁 지킨 엄 귀비 여성 교육 뜻 품은 선각자

61 고종 후궁 엄귀비 - 영휘원
영친왕 장남 이진 - 승인원

엄귀비 1854~1911(58세)
이진 1921.8.18~1922.5.11(1세)

1896년 2월 11일 새벽, 천지는 적막하나 지렁지렁한 용포를 입은 임금은 두려움에 가슴이 쿵쿵거리고 아랫배에는 비통함이 자욱하다.

“전하, 안심하시오소서. 잠시만 고통을 참으시면 금방 노서아공관에 당도하옵니다. 심지를 굳게 하시오소서. 소인이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이서 가마에 오르시오소서.”

차마 가마에 섰듯 오르지 못하는 고종 곁에서 몸집이 크고 당차게 생긴 여인이 주먹을 쥐고 허리를 굽혀 왕을 안심시킨다. 엄 상궁이다. 이국 병사들에 둘러싸여 고종은 잠시 궁궐을 바라본다. 캄캄한 밤중이라 건물의 윤곽조차 아둠에 묻혀 있다. 구 중궁궐을 버리고 남의 집 결방살이 하러 떠나는 비통한 심정을 아는 지 탐마저 검은 구름 속에 숨었다. 대장 부 같은 여인의 곁에서 겨우 힘을 얻은 고종은 허리를 숙여 천천히 가마에 오른다. 생선 타본 적 없는 작은 가마다.

겨사에는 러시아 장교 5명, 카자크인 4명, 수병 135명이 참여했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이국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마가 서서히 움직였다. 경복궁에서 정동까지 거리가 북극에서 남극까지만큼 멀게 느껴졌다. 자칫 일본군에게 발각되면 시가전이 벌어질 판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의 국왕은 피투성이가 돼 죽음을 맞을 수밖에. 러시아 공사관은 방어를 위해 대포도 동원했다. 여자의 가마는 건드리지 않는 조선의 관습을 이용, 궁녀의 가마에 고종을 태워 파천에 성공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조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고종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당시 고종은 조선의 내정을 장악한 일본인들이 음식에 독약을 넣어 울릴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미국 공사관이나 러시아 공사관에서 만든 밀폐된 음식만 먹었다. 조선은 이렇게 국왕의 안전조차 보장 받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다.

19세기말 외국 공사관들이 몰려 있어 공사관 거리라고 불렀던 정동. 이곳은 당시 정치 외교의 중심지였다. 정동에는 눈에 띄는 이국적인 건물이 하나 있다.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관 건물 흔적이다. 러시아 공사관의 본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건물의 중심이었던 전

망탕만 남아있다.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에 의해 르네상스풍으로 설계된 조선시대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이곳은 명성황후 시해 후 고종이 일본의 압력을 피해 1년 동안 피신해 있던 곳이다. 우리에게는 아관파천으로 더 유명한 곳이다.

건물 주변에는 러시아 공사관 건물의 흔적이 남아 있다. 건물 주춧돌이다. 주춧돌의 흔적으로만 봐도 당시 러시아 공사관의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동의 넓은 언덕바지에 지어진 러시아 공사관의 전체 면적은 무려 6800평에 달했다고 한다. 한옥을 개조해 쓰던 다른 공사관과 달리 유럽풍의 이중 건물로 화려하게 지었다. 1884년 외교 관계를 맺은 후 급속도로 조선과 가까워졌던 러시아.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일본을 견제해 줄 유일한 나라였다.

러시아 공사관 뒤쪽에 예사못지 않은 통로가 하나 있다. 높이 1.5m, 넓이는 1m, 통로 길이는 50m 정도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공간이다. 러시아 대사관 건물 아래로 통하게 돼 있다. 시멘트로 덧쳐워졌지만 원래는 벽돌을 쌓아 올린 이 통로는 무슨 용도일까? 바로 러시아 대사관과 외부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다. 비밀 통로가 설치돼 있는 러시아 공사관. 왕비가 살해되고 일본의 위협으로 고종의 신변마저 불안했을 정도로 조선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다. 일국의 제왕이 개구멍 같은 이 비밀통로를 통해 피신해야 했다. 힘 없는 나라 왕이 감수해야했던 비극의 현장이다.

아관파천은 비록 러시아의 힘을 빌렸지만, 일본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 기사화생한 조치였다. 아관파천을 통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다.

순헌황귀비 엄씨는 1854년(철종 5년) 부친 엄진삼의 장녀로 태어났고, 8세 되던 해에 입궁해 명성황후 민씨의 시위 상궁이 됐다. 이것이 인연이 돼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된 엄씨는 민씨에 의해 궁 밖으로 쫓겨났다가, 을미사변으로 민씨가 시해당한 5월 만에 고종의 명으로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됐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이범진 등 친러파의 권유를 받아들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1896년 2월 11일 피신했으며, 이를 아관파천이라 한다. 이 때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의 수라를 맡아 들어간 여인이 바로 엄씨였다.

당시 고종의 계비로 정화당 김씨가 조간택된 상황이었으나 민씨 시해사건의 주범이 점차 일본으로 밝혀지면서 국혼이 계속 연기되다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자 유아무아되고 말았다. 이 빈 공간을 엄씨가 맡은 것이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과 함께 지내던 엄씨는 1년 후 독립협회의 주장에 따라 고종이 환궁(1897년 2월 20일)함에 따라 대궐로 돌아왔다.

엄씨는 이 해(1897) 10월 아들 은(恩)을 낳아 고종에게 선영(善英)이란 이름을 하사 받고 귀인으로 책봉됐다. 그리고 3년 후인 1900년 8월, 아들이 영왕으로 봉해지자 순빈으로 책봉됐다. 다음해 10월 빈에서 비로 봉해졌으며 경선궁(慶善宮)이란 궁궐을 받았다. 엄씨는 빈에서 비로 승격됨에 따라 사실상 고종의 계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고종이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는 엄씨의 아들 영왕이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됐다. 영친왕으로 알려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가 바로 그다. 엄귀비 또한 황귀비로 책봉됐다.

엄씨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조선의 그 여느 왕비보다 여성 교육에 뜻이 많았던 선각자이기도 했다. 엄씨는 1906년에 진명여자학교를 세웠으며, 명신여자학교(현재 숙명여자대학교)를 만들 때 거액을 내놓아 사실상 이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양정학교 설립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엄씨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영향력을 발전적인 면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1911년 7월에 죽었다. 같은 해 8월에 안장하고 원호(圓號)를 영휘라고 했다. 사실상 고종의 계비였으나 혼례를 올리지 못해 황후가 될 수 없었고 따라서 능호도 얻지 못했다. 위패는 덕수궁 영복당(永福堂)에 봉안됐다. 경복궁 서북쪽에 있는 칠궁(七宮)으로 이안(移安)됐다.

핏덩이 이진의 죽음

할머니 곁 승인원에는 이승에서 첫들도 맞이하지 못한 어린 주검이 잠들어 있다. 일제는 고종의 넷째 아들 영친왕을 약탈해 만주와 강제로 파혼시키고 일본 왕실의 나시모토 마사코(이방자)와 1920년 정략 결혼시켰다. 황실의 후손을 끊으려는 일제는 일본 여의에게 불임녀라는 판정을 받은 마사코와 결혼시켰다. 그런데 1921년 8월 18일 그들 사이에서 아들 진(晉)이 태어났다.

1922년 4월 26일,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생후 8개월 된 황손 진을 순종에게 보일 겸 일본에서 귀국했다. 영친왕은 불모로 일본에 끌려가서 어머니 엄귀비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후 11년만이다. 이들 부부는 5월 12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11일, 어린 아기 진이 덕수궁 석조전에 서 갑자기 죽었다. 아기의 입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해 독살일 거라 했지만, 공식발표는 배알이로 죽었다는 것이다.

순종은 이를 애석히 여겨 왕자 책봉을 받지 않은 아이지만 왕실의 전통을 깨고 특별히 왕자의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게 했다. 어린 주검은 아관파천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용감한 친할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할머니 곁에 잠들어 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isang@hanmail.net
사진=최진현(사진작가)



고종의 후비 순헌귀비 엄씨의 묘소 영휘원(위)과 엄씨의 친손자이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이진의 원소 승인원.

영휘원(永徽園)과 승인원(崇仁園)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조선 제 26대왕 고종의 후비 순헌귀비 엄씨(純獻貴妃嚴氏)의 묘소. 사적 제361호. 면적 5만5015㎡. 한 묘역 안에 영휘원과 승인원이 있다. 이곳에는 원래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의 능인 흥릉이 있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경기

도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천장됐다. 이런 연유로 이곳은 지금도 '흥릉'이라 불리고 있다. 승인원은 영친왕과 이방자(李方子) 사이에서 태어난 진(晉)의 원소이다. 진은 1921년 8월에 태어나 그 이듬해 5월에 죽었다. 담장 밖 북쪽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관이 있으며, 구영릉(舊英陵, 서울 서초구 내곡동 현인동)에서 수습해온 신도비와 능호석(陵護石) 등이 전 시돼 있다.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완전 수제품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볼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진품 벽조목은 수백년 묵은 대추나무로 총복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걸이,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추,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호신부 패물 부적 재앙 액운 성물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집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암 공덕하 전법사
02)985-1360 / 010-9964-2550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상황적 발표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중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형 개인지도, 비디오 촬영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 1인 개인지도 - 8과정 : 100만원
- * 2인 개인지도 - 8과정 : 60만원
- * 3인 개인지도 - 8과정 : 40만원

지도교수 又佛 김철희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가운솔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문)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복, 모듬복 · 장고 · 징 ·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습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